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일 시 : 2012. 11. 27(화) 9:30~12:30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일 정]

사회 장혜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09:30 ~ 10:00	30분	<input type="checkbox"/> 등록
10:00 ~ 10:05	5분	<input type="checkbox"/> 환영사 이영 소장(육아정책연구소)
10:05 ~ 10:30	25분	<input type="checkbox"/> 주제발표 :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문무경 동향분석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10:30 ~ 10:50	20분	<input type="checkbox"/> 사례발표 :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사례 박정희 교장(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10:50 ~ 10:55	5분	<input type="checkbox"/>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소개(영상자료)
10:55 ~ 11:10	15분	<input type="checkbox"/> 휴식
11:10 ~ 12:10	60분	<input type="checkbox"/> 토론 이원오 교장(북경한국국제학교) 임재홍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안정은 장학관(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안정근 교수(김포대학교)
12:10 ~ 12:30	20분	<input type="checkbox"/> 질의 응답 및 폐회

차 례

1. 주제발표	1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문무경 동향분석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	
2. 사례발표	53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사례	
박정희 교장(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3. 토론	65
토론 1: 이원오 교장(북경한국국제학교)	
토론 2: 임재홍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토론 3: 안정은 장학관(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토론 4: 안정근 교수(김포대학교)	

주제 발표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동향분석연구실장)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동향분석연구실장)

I. 서론

2011년 외교통상부 기준으로 재외한인동포는 169개국에 약 73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과 미국에 각 200만명 이상 거주하여 전체 재외동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외동포는 일본(91만명), 러시아(22만명), 우즈베키스탄(17.5만명), 필리핀(11.5만명) 등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외한인동포는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자가 대다수이며,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에는 체류자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외한인동포의 증대와 더불어 최근 재외동포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활발히 대두되었다. 2010년에는 재외동포의 참정권과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이 법제화 되는 등 정치적·사회적 권리 신장을 통해 재외동포의 모국발전에 대한 참여의 길이 확대되었다. 특히, 2010년에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개국에 설립된 총 30개 한국학교 가운데 16개교에 설립된 재외병설유치원의 대부분이 인가를 받게 되었다. 재외병설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인가로 재외병설유치원 취원아는 2011년 665명에서 2012년 900여명으로 약 35%나 획기적으로 증대하였으며, 이는 전체 한국학교 이용학생의 7.9%에 해당한다. 2013~14년도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한국학교들이 5개교 이상이므로 이러한 양적 증대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재외병설유치원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교육의 질 향상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외병설유치원은 한국학교와 유사하게 한글과 민족성 교육 및 현지적응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생애초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초중등한국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부모의 취학 전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외병설유치원의 특성과 현지 여건은 주요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 예로, 2010년도에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제가 폐지되고 고용휴직제 형태로 교사들을 임용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한국학교 교사 수급 및 연수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특히, 병설유치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재직교사들의 상당수는 현지에서 교육받은 교사들이어서 자격요건이 문제시되며 교사 관리 및 재교육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재외한인 유아가 취원하고 있는 10개국 16개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¹⁾를 실시하여 운영실태 및 정부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아울러, 병설유치원 미설치 14개 한국학교에 대한 설치 계획과 수요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발전

1950년대 초까지 재외동포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정책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해방 후 정부가 재외동포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전까지 재외동포교육은 민주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자주적으로 전개되었다. 1956년 정부는 교과서 무상배부 및 재원지원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시행되었다. 상대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교육 지원을 전개하였는데 모범학교 설치로 재외국민 교육의 모델 제시, 재외공관에 장학관을 파견하여 교육정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에 있는 전일제 한국학교에서는 민족교과내용을 추가하였다.

1970년 이후 재외동포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6년에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재외동포의 증가와 함께 1970년대에는 한국학교 설립, 장학재단 설립, 한국교육원 설치, 장학관 파견, 교과서 배부 등 재외동포교육사업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는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재외국민교육 기관과 단체의 규정, 교육공무원 파견, 예산 지원, 교재 공급, 국내 각종 사업 추진 등의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의 증가는 토요한국학교의 활성화를 가져와 17개국 78개교에 토요한국학교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가히, 70년대는 정부의 재외동포 교육지원 정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외한국학교가 설립된 것은 재외국민 뿐 아니라, 급증하

1) 설문조사는 병설유치원 설치 및 미설치 재외한국학교 총 30개교(각각 16개교와 14개교) 기관장 30명, 재외병설유치원 교사 52명(10개국, 16개원), 학부모 334명(9개원)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지원 요구 등에 대하여 실시됨.

는 이민자와 해외 파견 자녀에 대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재외동포수가 급격히 늘어나, 재외동포교육 지원 및 관련 교육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재외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유지, 토요학교 운영, 교사를 위한 연수, 교과서 지급 등 한국정부의 활발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졌다. 재외한국학교(1987)는 10개국에 총 16개교, 145개 학급(유치원 20학급, 초등 84학급, 중등 34학급)으로 운영되었다. 70년대에 비해 토요학교 역시 한층 증가하여 55개국에 571개 학급이 설치·운영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외교정책을 통한 국제교류의 시작으로 재외동포교육을 다른 시각에서 조망하게 되었다. 독립국가연합지역,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미수교권 지역 거주 재외동포에게까지 활발한 교육지원을 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재외한국학교를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귀국 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국내 적응훈련교육을 강화하였다(김한철, 2010; 최은수, 1998)

2000년대에는 정부의 한글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운영 지원도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화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재외동포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민족교육을 강조하는 것보다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교육대상별 교육욕구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도모하고자 재외한국학교 특성을 살리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특히, 2010년에 개정된 한국학교 내 유치원 병설에 관한 조항에 의해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유아도 재외동포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교육기관 지원 폭을 늘리고 소재국의 특수성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한 특성화 시범학교 7개교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한국학교 재원 배분 기준을 개선하여 국내의 교원배치기준이나 표준교육비 등을 감안해 재외교육기관의 재원도 배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학교 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에 약 21억원이 신규 지원되며 67개 재외교육기관장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계획하였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을 위해 한국어 교과목 채택에 약 27억원이 투자되었고 CIS 지역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현지 초·중고 및 대학에도 8월 중 약 3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다. 차세대 동포들의 한글교육을 위하여 국내 초·중등학교 교재 및 지도서를 현지어판으로 개발한 교재를 보급하며, 지난 해 베트남어와 프랑스어로 된 한글교재가 보급된 데 이어 2012년도에는 중국어 및 태국어 교재를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이나 교사 연수는 주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재외동포교육과 국제교육 교류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며

재외동포교육의 내실화 및 다양화에 힘쓰고 있다.

III.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현황

1. 재외병설유치원 기본 현황

가. 기관 현황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7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한국학교이며, 현재 10개국 16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병설유치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인 2009년에는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 8개국 14개교에 설치되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재외 병설유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6개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오사카 금강학교와 필리핀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원하였으며, 반면 싱가포르 한국학교, 브라질 한국학교, 중국 무석한국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신설되었다.

〈표 III-1〉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및 인가년도

단위 : 년

지역명	국가명	유치원명	학교 설립연도	유치원 설립연도	유치원 인가연도
동북아	일본	백두학원 건국유치원	1962	1987	1987
		북경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1993	1995	2010
	중국	천진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2001	2000	2010
		무석한국학교 병설유치원	2006	2006	2010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병설유치원	2006	2006	2010
		선양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2006	2006	2010
동남아	중국(홍콩)	홍콩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1988	1988	1994
	타이완	타이베이한국학교 병설유치원	1961	1984	2010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1993	2011	2011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1998	1998	2010
중동 및 러시아	사우디	리야드한국학교 병설유치원	1979	1979	미인가
	아라비아	젯다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1976	1981	미인가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병설유치원	1992	1990	2010
남미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병설유치원	1992	2006	2011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병설유치원	1995	1996	2010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병설유치원	1998	1998	2010

현재까지 설립된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16개원 중 14개원이 우리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한국학교와 쯏다 한국학교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아 수가 적어 병설유치원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 중이다.

재외병설유치원은 대체로 만3~5세 원아를 수용하고 있으며, 칭다오청운, 싱가포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4개원에서는 만 2세도 수용하고 있다. 학급 편성은 홍콩, 타이베이, 쯏다, 모스크바 그리고 파라과이 5개원에서는 혼합연령으로, 나머지 11개원에서는 단일 연령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급의 수는 최소 1개(타이베이, 리야드, 쯏다)에서 최대 10개 학급(아르헨티나)까지 있다. 한 학급당 담임교사 수는 대체로 1명이며, 일본 건국,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경우, 2명의 담임교사로 운영된다.

〈표 III-2〉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학급 현황

단위 : 명

병설유치원명	대상연령	학급연령구분	학급수	원아수	담임교사수
건국(일)	만3~5세	단일	3	35	5
북경(중)	만3~5세	단일	4	69	4
천진(중)	만3~5세	단일	6	153	6
무석(중)	만3~5세	단일	3	55	3
칭다오청운(중)	만2~5세	단일	5	85	5
선양(중)	만3~5세	단일	3	29	3
홍콩(중)	만3~5세	혼합	2	32	2
타이베이(타)	만3~5세	혼합	1	12	2
싱가포르	만2~5세	단일	7	108	7
호치민(베)	만3~5세	혼합	2	40	2
리야드(사)	만5세	단일	1	2	1
쯏다(사)	만3~5세	혼합	1	7	1
모스크바(러)	만3~5세	혼합	2	33	2
파라과이	만3~5세	혼합	3	32	3
아르헨티나	만2~5세	단일	10	152	20
브라질	만2~5세	단일	4	57	8

나. 원아 현황

2012년 9월 기준,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총 901명으로 재외 한국학교 총 재학생의 7.9%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동북아 지역에 재원아의 47.1%(423

명)가 밀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남미에 26.7%(241명), 동남아 지역에 21.3%(192명), 그리고 중동 및 러시아에 4.7%(42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에 108명(12.0%) 재원 중이며, 나머지 학교들에는 12~85명의 유아가 재원 중으로, 학교마다 원아 수의 편차가 다소 큰 편이다. 개별학교별로는 중국 천진(153명)과 아르헨티나(152명)가 재원아 수가 가장 많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2명)와 쯏다(7명)가 가장 적다.

〈표 III-3〉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원아 비율

단위 : 명, %

지역명	유치원명	총 학생수	총 원아수	학교내 원아비율	전체 원아대 학교별 원아비율
동북아	선양(중)	420	29	15.6	3.2
	건국(일)	1,053	32	7.6	3.6
	무석(중)	961	55	11.7	6.1
	북경(중)	470	69	6.6	7.7
	칭다오청운(중)	735	85	11.6	9.5
	천진(중)	186	153	15.9	17.0
	소계	3,825	423	-	47.1
동남아	타이베이(타)	200	12	34.3	1.3
	홍콩(중)	35	32	16.0	3.6
	싱가포르	1,186	108	31.1	12.0
	호치민시(베)	347	40	3.4	4.5
	소계	1,768	192	-	21.4
중동 및 러시아	리야드(사)	13	2	15.4	0.2
	쯏다(사)	14	7	50.0	0.8
	모스크바(러)	93	33	35.5	3.7
	소계	120	42	-	4.7
남미	파라과이	205	32	24.2	3.6
	브라질	302	57	27.8	6.3
	아르헨티나	132	152	50.3	16.9
	소계	639	241	-	26.8
총계		6,352	898	14.2	100.0

재외한국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최소 20명(리야드)에서 최대 162명(아르헨티나)이며, 정원 충족률은 가장 낮게는 리야드가 10%이며, 가장 높게는 홍콩과 호치민시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선양의 정원 충족률이 51.8%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그 다음으로 타이베이(60%), 건국(70%) 병설유치원이다. 남미 지역의 3개 원은 파라과이가 80.0%로 상대적으로 낮은 충족률이 보이며, 나머지 원들은 높은 편(95%, 93%)이다.

대기아 수는 총 62명으로 싱가포르 병설유치원에 가장 많으며(20명), 그 다음으로 칭다오청운에 17명, 홍콩 및 천진에 각 10명씩이다. 리야드의 경우, 가장 낮은 정원 충족률을 보이지만 영아대기아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학부모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재원아 현황

유치원명	정원	현원	대기아	단위 : 명, %
				정원충족률
선양(중)	56	29	-	51.8
건국(일)	50	35	-	70.0
칭다오청운(중)	100	85	17(17.0)	85.0
북경(중)	80	69	-	86.3
무석(중)	60	55	-	91.7
천진(중)	156	153	10(6.4)	98.1
타이베이(타)	20	12	-	60.0
싱가포르	130	108	20(15.4)	83.1
홍콩(중)	32	32	10(31.3)	100.0
호치민시(베)	40	40	3(7.5)	100.0
리야드(사)	20	2	2(10.0)	10.0
젯다(사)	15	7	-	46.7
모스크바(러)	60	33	-	55.0
파라과이	40	32	-	80.0
아르헨티나	162	152	-	93.8
브라질	60	57	-	95.0
	1081	901	62(100.0)	75.4

한편, 원아 모집의 어려움은 정원 충족률 정도와 상관없이 16개교 모두가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학부모가 타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곳이 11개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낮은 수요’와 ‘원거리 통학’(각각 5개원씩), ‘비싼 수업료’(3개원), ‘교사의 전문성’과 ‘시설의 낙후’(각각 1개원) 순이다. 천진과 무석 병설유치원은 학부모가 타 기관을 선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어려우며, 젯다(학부모의 타기관 선호 및

낮은 수요)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13개교는 모두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표 III-5〉 원아 모집이 어려운 이유 및 개선 가능성

단위 : 개

유치원명	원아모집 어려움	낮은 수요	비싼 수업료	타기관 선호	원거리 통학	교육 과정	교사 전문성	시설 낙후	계	개선 가능성
건국(일)	○				○				1	○
북경(중)	○			○					1	○
천진(중)	○			○					1	×
무석(중)	○			○					1	×
칭다오청운(중)	○		○		○				2	○
선양(중)	○	○							1	○
홍콩(중)	○		○	○	○				3	○
타이베이(타)	○	○		○	○			○	4	○
싱가포르	○			○			○		2	○
호치민시(베)	○		○	○					2	○
리아드(사)	○	○							1	○
젯다(사)	○	○		○					2	악화
모스크바(러)	○				○				1	○
파라과이	○	○		○					2	○
아르헨티나	○			○	○				2	○
브라질	○			○					1	○
계	16	5	3	11	5	-	1	1		

재외병설유치원의 재원아 64.4%가 양부모 모두 한국인이며, 30.5%는 한 부모만이 한국인이며, 5.1%는 부모가 주재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 특히 타이베이와 건국의 경우, 한국인 부모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더 높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대체로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가 더 많은데, 예외적으로 일본의 건국, 중국의 홍콩과 싱가포르 병설유치원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다문화 가정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국유치원은 현지인 부모의 비율도 14.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남미 지역의 3개원인 아르헨티나가 12.5%, 파라과이가 9.4%, 브라질이 5.3% 잇따르고 있다.

다. 교사 현황

2012년 9월 기준,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교원 수는 197명이며, 이중 전임 원장 2

명(천진과 아르헨티나), 전임 원감 6명, 담임교사 74명이다. 여타 교원으로 보조교사, 외국어교사 및 특별활동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표 III-6〉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교원 현황

단위 : 명

학교명	학급수	원장	원감	담임	보조	외국어	특별활동	계
건국(일)	3	-	-	5	-	2	3	10
북경(중)	4	-	1	4	3	2	5	15
천진(중)	6	-	1	6	6	2	5	20
무석(중)	3	-	-	3	4	4	4	15
칭다오청운(중)	5	-	1	5	5	2	1	14
신양(중)	3	-	-	3	3	2	4	12
홍콩(중)	2	-	-	2	2	2	5	11
타이베이(타)	1	-	-	2	-	1	1	4
싱가포르	7	-	1	7	6	3	6	23
호치민(베)	2	-	-	2	2	1	1	6
리야드(사)	1	-	-	1	-	1	-	2
젯다(사)	1	-	-	1	-	3	7	11
모스크바(러)	2	-	-	3	-	1	-	4
파라과이	3	-	-	2	2	-	-	4
아르헨티나	10	1	1	20	6	1	5	34
브라질	4	-	1	8	1	1	1	12
계	57	2	6	73	40	28	48	197

재외병설유치원 담임교사의 98.6%가 여성(유일하게 무석학교병설유치원에 남자교사 근무)이며, 평균 연령은 33.세(30대가 44.6%로 가장 많음), 74.3%가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86.5%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며, 83.8%가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반면, 아르헨티나에 9명, 파라과이에 1명이 자격증 무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다.

재외병설유치원 담임교사들의 총 교사경력 평균은 8.1년이며,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4.1년이다. 한편, 한국학교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교사가 47.3%로 가장 많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총 20명의 담임교사 중 11명이 현지인이며, 브라질은 총 8명의 담임교사 중 5명이 브라질 국적의 한국인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8.52명으로 초등 10.94명, 중·고등 9.81명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최소 2명인 리야드 병설유치원부터 최대 13.4명의 천

진병설유치원까지 편차가 큰 편이다.

2. 교육시설 현황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재외한국학교 16개교 중 9개교는 학교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교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 건물과 분리되어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건국, 칭다오청운과 젯다 3개원이며, 나머지 13개원은 모두 초등학교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이 이용하고 있는 층수는 건국(2층)과 홍콩(3층)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층이며, 아르헨티나는 1, 2층과 더불어 지하를 사용하고 있다.

교지 면적으로는 무석한국학교가 20,000㎡로 가장 넓으며, 타이베이 한국학교가 1,415㎡로 가장 협소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학교건물 면적 역시, 타이베이한국학교가 557㎡로 가장 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 1인당 교지 면적은 젯다가 626.7㎡로 가장 넓으며, 아르헨티나가 4.8㎡로 가장 좁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 1인당 학교건물 면적은 리야드가 78.8㎡로 가장 넓고, 싱가포르가 9.2㎡로 가장 좁다.

유아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로 교실, 실외놀이터 및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은 대부분의 유치원에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선양과 호치민시 2곳에는 실외놀이터가 부재하며, 선양에는 대신 실내에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호치민시에는 실내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시설로 도서실이 12개원에 마련되어 있다. 별도의 급식 공간과 조리실이 있는 유치원도 각각 6개원과 7개원이며, 그 외에 컴퓨터실과 강당이 있는 곳도 각각 6개원과 7개원이 있다. 교육 시설이 가장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로 위에 언급한 시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한국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대체로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 혹은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는 주변 치안이 좋지 않은 편이다.

〈표 III-7〉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시설 현황

유치원명	건물소유		건물이용		이용층수	기본 이용 시설										계		
	소유	임대	단독	초·중·고공용		놀이터			화장실	급식실	조리실	도서실	컴퓨터실	강당	기타			
						교실	실내	실외										
건국(일)	○		○		2층	○	○	○	○	○								5
북경(중)	○		○		1층	○	○	○	○			○		○				6
천진(중)		○		○	1층	○		○	○			○		○	○			6
무석(중)		○		○	1층	○	○	○	○							○		5
창다오청운(중)		○	○		1층	○	○	○	○	○	○							6
선양(중)		○		○	1층	○	○		○	○	○	○	○			○		8
홍콩(중)		○		○	3층	○	○	○	○			○	○	○				7
타이베이(타)	○			○	1층	○		○	○		○	○						5
싱가포르		○		○	1층	○		○	○			○						4
호치민(베)	○			○	1층	○			○			○						3
리야드(사)		○		○	1층	○		○	○									3
젯다(사)	○		○		1층	○		○	○			○	○					5
모스크바(러)	○			○	1층	○		○	○	○	○	○	○	○	○			8
파라과이	○			○	1층	○	○	○	○	○	○	○	○	○	○			9
아르헨티나	○			○	1, 2층 지하	○	○	○	○	○	○	○	○	○	○			9
브라질	○			○	1층	○	○	○	○		○	○		○				7
계	9	7	3	13		16	9	14	16	6	7	12	6	7	3			

주 : 천진- 특별활동실, 무석- 체육실, 선양- 화초재배화단

3. 교육비 및 예산 현황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의 예산이 초·중등과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7개교이고, 통합되어 있는 곳이 8개원이다(북경의 경우, 관련정보가 없음).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재외한국학교의 총 연간 예산 중 가장 그 규모가 큰 학교는 북경으로 25,591백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아르헨티나가 1.9백만원이다. 병설유치원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일본 건국유치원으로 890.9백만원이며, 천진 병설유치원이 3.0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외한국학교의 월평균 납입 교육비의 평균은 284.3천원이며, 교육비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홍콩(625.9천원)이고 교육비를 가장 적게 받는 곳은 파라과이로, 홍콩의 1/12 수준인 52.0천원이다. 재외한국학교의 총 예산 중 교육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브라질로 70%이며, 가장 낮은 학교는 리야드로 4.6%에 불과하다.

병설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브라질이 750천원으로 가장 높고, 파라과이는 104.0천원으로 가장 낮다. 교육비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북경, 천진과 싱가포르 병설유치원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 부담비용 의존도가 가장 낮은 곳은 호치민 병설유치원으로 총 예산의 1.6%만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8〉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연간 예산 및 원아 1인당 월평균 납입금

단위 : 백만원, 천원 %

학교명	초·중등재정과 의		연간 지출규모(백만원)		1인당 월평균 납입금(천원)			
	분리	미분리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한국학교	예산비중	병설유치원	예산비중
건국(일)	○		4,788.0	890.9	267.0	52.0%	189.0	40.0 %
북경(중)		무응답	25,591.0	409.0	267.0	-	615.0	100.0
천진(중)	○		35.5	3.0	237.0	52.1	237.0	100.0
무석(중)		○	3,592.0	218.8	369.0	64.0	332.0	-
칭다오(중)	○		-	-	-	-	-	-
선양(중)		○	1,447.0	-	237.0	50.0	237.0	50.0
홍콩(중)	○		5,898.0	-	625.9	60.0	625.9	7.7
타이베이(타)		○	660.0	-	145.0	8.0	247.0	6.0
싱가포르		○	2,511.0	39.9	262.0	-	603.0	100.0
호치민(베)	○		5,359.0	75.0	200.0	22.5	222.0	1.6
리야드(사)		○	300.5	43.3	187.0	4.6	299.0	7.4
젯다(사)		○	217.7	47.3	234.0	15.0	280.0	28.0
모스크바(러)	○		1,277.0	-	335.0	40.0	335.0	-
파라과이	○		545.8	36.0	52.0	20.0	104.0	90.0
아르헨티나		○	1.9	-	376.5	67.0	376.5	67.0
브라질		○	2,074.0	622.0	470.0	70.0	750.0	30.0
계	7	8	3,619.9	238.5	284.3	-	363.5	-
최소치			1.9 (아르헨)	3.0(천진)	2.0(파라)	4.6(리아)	104.0(파라)	1.6(호치)
최대치			25,591.0(북경)	890.9(건국)	625.9(홍콩)	70.0(브라)	750.0(브라)	100.0

* 주 : 파라과이는 종일반 추가납입금 52천원

Ⅳ.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

1. 교육과정 운영

가. 교육과정 운영 형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40.4%), 2)우리나라와 현지 교육과정 병행(42.3%), 3) 현지교육과정 운영. 지역권별로 중국, 중동, 러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남미에 위치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학교에서는 우리나라와 현지 유치원 교육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대부분 장기체류자이고 본국으로 귀국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국학교의 기능이 본국과의 연계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적응교육 측면에서 강화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재외한국학교 중 일본 건국학교 유치원만이 현지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싱가포르 한국학교는 누리과정과 함께 영어, 중국어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과 외국어중심 교육과정이 혼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형태

단위 : %(명)

구분	한국유치원 교육과정	외국어중심 교육과정	현지 유치원 교육과정	한국+현지 유치원교육과정	기타	합계
전체	40.4	-	3.8	42.3	13.5	100.0(52)
지역						
동남아	25.0	-	-	25.0	50.0	100.0(8)
중국/일본권	60.9	-	8.7	17.4	13.0	100.0(23)
중동/러시아	100.0	-	-	-	-	100.0(5)
남미	-	-	-	100.0	-	100.0(16)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을 현지에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사의 변인에 상관없이 교육과정을 구현할 교구 및 기자재 부족(43.2%)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현지 실정에 맞지 않음(25.9%)과 학부모가 현지 혹은 외국어 교육과정을 선호(14.8%)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구 및 기자재 부족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보조교

사인 경우나 근무경력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 교재나 교구를 비롯한 물리적 자원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본국과의 연계교육 외에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IV-2〉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을 현지에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 이해 부족	현지 실정에 맞지 않음	학부모가 현지, 외국 어교육과정 선호	교육과정 구현할 교구 및 기자재 부족	현재 어려움 없음	기타	합계
전체	11.1	25.9	14.8	43.2	1.2	3.7	100.0(52)
지역							
동남아	8.3	8.3	16.7	66.7	-	-	100.0(8)
중국/일본권	9.1	27.3	24.2	36.4	3.0	-	100.0(23)
중동/러시아	-	12.5	12.5	62.5	-	12.5	100.0(5)
남미	17.9	35.7	3.6	35.7	-	7.1	100.0(16)
직위							
담임교사	8.3	26.4	16.7	43.1	1.4	4.2	100.0(46)
보조교사	33.3	22.2	-	44.4	-	-	100.0(6)
근무경력							
2년 이하	33.3	16.7	16.7	33.3	-	-	100.0(8)
2-5년	8.0	28.0	12.0	48.0	-	4.0	100.0(13)
5-10년	-	25.0	12.5	54.2	-	8.3	100.0(16)
10년 이상	15.0	30.0	20.0	30.0	5.0	-	100.0(15)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철학이나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한다는 32.7%로 가장 많았으며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15.4%)하거나 몬테소리 수업을 운영(11.5%)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이 주제 중심의 활동을 중요시함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부분 인성교육, 이중문화교육, 민족정체성교육을 프로젝트 학습과 연결시켜 운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기도 하며, 특히 몬테소리 교육은 브라질 병설유치원에서 두드러졌으며, 이 외에도 생태교육, 창의성교육, 가베 등을 병설유치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교육과정 운영 관련 철학 및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관련 철학 및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 운영	17	32.7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누리과정 운영)	8	15.4
몬테소리 수업	6	11.5
민족정체성 관련 교육	4	7.7
이중언어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4	7.7
독서 및 동화를 통한 교육	3	5.7
기타(생태교육, 배려심, 창의성, 가베, 개별화 교육, 요리 등)	8	15.3
합계	52	100

나.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1) 학사 운영

재외병설유치원의 연간수업일수는 대체적으로 200일 전후(평균 193.9일)이며 지역별로 중국에 위치한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수업일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수업일수가 가장 많은 병설유치원은 칭다운청운 한국국제학교 유치원으로 수업일수가 217일, 연간방학기간은 30일이다. 방학기간은 대체로 70~90일 사이(평균 70.9일)이나 일본건국학교나 칭다오청운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과 같이 짧은 경우는 여름, 겨울 방학동안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과시간은 학교에 상관없이 비슷하며 대체적으로 09:00경에 시작하여 15:00 전후로 종료한다.

상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무석 한국학교, 모스크바 한국학교와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병설유치원 3곳 뿐이며, 파라과이와 브라질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은 경우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병설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오전과 오후 각 1시간씩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해 방과후 학습을 주 2회 실시하였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다.

연간교육과정을 계획은 원장, 원감, 교사의 협의(50.0%)로 이루어진다고 답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은 주로 담임교사(23.1)임을 알 수 있다. 기타에 답한 의견이 17.3%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라질의 경우, 연간교육과정 계획은 원감과 한국인, 현지인 교사의 협의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연구부장 교사와의 협의가 특징적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담임교사의 비율이 높고, 남미 지역에서는 원

장, 원감, 교사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4〉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학사 운영

유치원명	연간수업일수	연간방학일수	1일 운영시간	돌봄 서비스
건국(일)	220	39	08:30~14:30	×
북경(중)	206	30	09:00~15:40	×
천진(중)	185	95	09:00~15:00	×
무석(중)	207	70	08:40~16:00	○
칭다오청운(중)	217	30	08:30~14:50	×
선양(중)	186	95	09:00~15:30	×
홍콩(중)	186	70	08:30~15:00	×
타이베이(타)	190	66	08:30~15:50	수요에 따라
싱가포르	180	75	09:20~15:20	×
호치민(베)	181	70	08:30~15:00	×
리야드(사)	185	90	09:30~14:00	×
젯다(사)	206	94	08:20~14:10	×
모스크바(러)	182	78	09:00~15:20	○
아르헨티나	190	66	09:00~16:00	○
브라질	194	73	07:30~16:30	수요에 따라
파라과이	188	89	08:30~17:00	수요에 따라
계	193.9	70.6		

한국인과 현지인 교사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홍콩 병설유치원뿐인 것으로 나타나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현지인 교사가 보조교사의 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 교사가 교육과정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지적응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인 교사와 현지인 교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표 IV-5〉 연간교육과정 계획 담당

구분	담임 교사	주임 교사	원감	원장, 원감, 교사협의	한국인 교사협의	현지인 교사협의	기타	단위: %(명)
								합계
전체	23.1	5.8	1.9	50.0	1.9	17.3	52(100.0)	
동남아	37.5	12.5	.0	25.0	.0	25.0	8(100.0)	
중국/일본권	26.1	4.3	.0	56.5	4.3	8.7	23(100.0)	
중동/러시아	20.0	20.0	20.0	20.0	.0	20.0	5(100.0)	
남미	12.5	.0	.0	62.5	.0	25.0	16(100.0)	

것이다.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장이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연간교육과정 계획에 참여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2) 교실 영역구성 및 교수·학습자료

전반적인 교실환경에 대해서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유아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으나(50.0%)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26.9%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환경에 대한 평가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나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유아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2세의 경우 33.3%이지만 5세의 경우 76.9%로 높아진다.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역 구성이나 교실 환경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합연령인 경우에는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경우가 50%나 차지하여 유아의 수가 많지 않은 곳일수록 교실환경 구성을 위한 교구 및 자료들이 모자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6〉 병설유치원의 전반적 교실환경

단위 : %(명)

구분	영역별구분, 유아에 적합	영역별구분 유아에 부적합	영역별 구분 없음	기타	합계
전체	50.0	13.5	26.9	9.6	100.0(52)
담당 유아 연령					
2세	33.3	16.7	33.3	16.7	100.0(6)
3세	42.9	21.4	28.6	7.1	100.0(14)
4세	54.5	-	36.4	9.1	100.0(11)
5세	76.9	15.4	-	7.7	100.0(13)
혼합연령	25.0	12.5	50.0	12.5	100.0(8)
지역					
동남아	62.5	-	25.0	12.5	100.0(8)
중국/일본권	69.6	21.7	8.7	-	100.0(23)
중동/러시아	60.0	-	-	40.0	100.0(5)
남미	12.5	12.5	62.5	12.5	100.0(16)

병설유치원 교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매체는 컴퓨터/인터넷(46.2%)로 조사되었다. 컴퓨터/인터넷 사용은 20대보다 30, 40대 교사, 유아 연령이 높은 교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교사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사진이나 그림(44.4%)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른 연령대에서 볼 수 없는 자체 제작한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교육 관련 자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한국 방문시 한국에서 구매하거나(36.8%) 현지에서 직접 구매(23.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

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지만 교육 자료를 우리 정부로부터 직접 조달받는 비율은 낮다(2.6%).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 방문시 한국에서 구매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일본권에서 현지에서 구매한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기타에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하여 한국 민간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현지에서 교육 자료를 받는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표 IV-7〉 교육 자료 구하는 방법

구분	현지 구매	현지 민간 단체 제공	한국방문시 구매	한국 정부 제공	한국 민간 단체 제공	기타	합계
전체	23.7	2.6	36.8	2.6	6.6	27.6	100.0(52)
지역							
동남아	10.0	-	60.0	-	-	30.0	100.0(8)
중국/일본권	33.3	2.8	44.4	2.8	2.8	13.9	100.0(23)
중동/러시아	33.3	-	50.0	-	-	16.7	100.0(5)
남미	12.5	4.2	12.5	4.2	16.7	50.0	100.0(16)

필요로 하는 교수자료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개발한 교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48.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자료(28.4%), 현지에서 개발한 교재 및 프로그램(10.8%), 현지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자료(4.1%)순이었다. 멀티미디어 자료보다는 교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고, 현지자료보다는 한국 자료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교사의 변인에 상관없이 나타났지만, 특히 중동, 러시아에서는 한국 교재나 프로그램보다 한국개발 멀티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교육 자료를 보급함에 있어서 현지의 수요나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평가

1) 전반적 교육과정 운영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경우 (46.2%)가 가장 많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이 73.1%로 전반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권으로 보면, 중동/러시아의 점수(5.00)가 가장 높고, 남미 점수(3.81)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안전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교사는 81.8%를 차지하며 이에 대한 평균 점수는 4.15점이다. 지역권별로 보면, 중동/러시아가 4.8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국/일본권 4.17점, 남미 4.13점, 동남아 3.75점으로 가장 낮다. 혼합연령반의 경우 3.75점으로 안전 측면에서 각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취약한 점수를 받았다.

유아의 건강을 고려한 급·간식 제공 여부에 대해 76.9%의 교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4.13점이다. 전체 평균점수는 앞서 알아본 활동의 다양성이나 교육환경의 안전 측면과 비슷한 점수이다. 지역별 점수를 보면 중국/일본권(4.26점)이 가장 높고, 중동/러시아(4.20점), 동남아와 남미(4.00점)가 그 뒤를 이었다. 교사의 연령이 높은 40대에서 급·간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유아에게 적절한 한글교육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응답한 교사의 65.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중국/일본권의 교사가 적절한 한글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본보다는 중국 교사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동/러시아 지역의 교사의 개인 변인 관련으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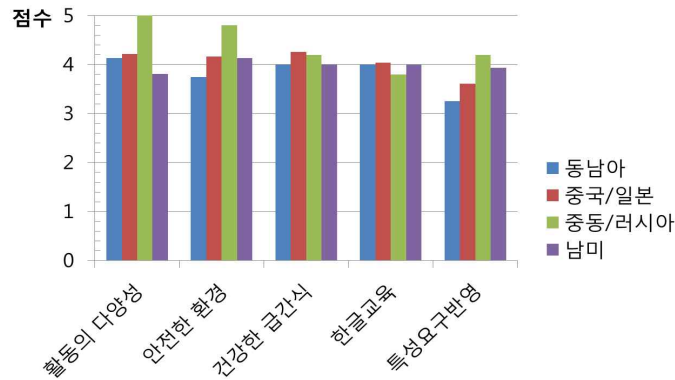
〈표 IV-8〉 유아 대상 적절한 한글교육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약간 그리함	매우 그리함	합계	평균
전체	-	1.9	32.7	28.8	36.5	100.0(52)	4.0
지역							
동남아	-	-	37.5	25.0	37.5	100.0(8)	4.0
중국/일본권	-	4.3	21.7	39.1	34.8	100.0(23)	4.0
중동/러시아	-	-	40.0	40.0	20.0	100.0(5)	3.8
남미	-	-	43.8	12.5	43.8	100.0(16)	4.0

다양한 문화적 배경(인종, 문화, 언어 등)을 지닌 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활동 제공에 관해서는 57.7%의 교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평균 3.71점). 지역별로 동남아

에 위치한 병설유치원 교사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며 중동/러시아의 교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연령별로 보면, 만2, 3세 담당 교사는 각각 4.17점, 4.0점인데 반하여 4세는 3.36점, 5세는 3.54점, 혼합연령반은 3.63점으로 높은 연령대나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개별적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한 활동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알아본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관련 지역권별 점수를 비교하면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관련 지역별·항목별 점수 비교

항목별 평균점수는 활동의 다양성(4.15점)·안전한 교육환경(4.15점), 건강한 급·간식(4.13점), 한글교육(4.00점), 유아의 특성과 요구 반영(3.71점)순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나타나 언어, 문화, 민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아에게 개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 교수역량

주재국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사는 전체교사의 26.9%(약간 그러함 15.4% + 매우 그러함 11.5%)에 불과하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교사가 36.5%,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7.7%로 파악되었다. 지역권으로 보면 중동/러시아 교사가 현지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현지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지 교육과정을 당연히 더 잘 알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9〉 현지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평균
전체	7.7	28.8	36.5	15.4	11.5	52(100.0)	2.9
지역							
동남아	25.0	25.0	12.5	37.5	-	100.0(8)	2.6
중국/일본권	4.3	30.4	39.1	17.4	8.7	100.0(23)	3.0
중동/러시아	-	20.0	40.0		40.0	100.0(5)	3.6
남미	6.3	31.3	43.8	6.3	12.5	100.0(16)	2.9
근무경력							
2년 이하	25.0	25.0	25.0	12.5	12.5	8(100.0)	2.6
2-5년	7.7	23.1	46.2	15.4	7.7	13(100.0)	2.9
5-10년	6.3	31.3	43.8	12.5	6.3	16(100.0)	2.8
10년 이상	-	33.3	26.7	20.0	20.0	15(100.0)	3.3

한편, 한국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전체 평균 3.90점으로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67.3%를 차지하여 ‘현지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율(26.9%)보다 월등히 높다. 지역권으로 보면 동남아(4.63점), 중동/러시아(4.60점), 중국/일본권(4.09점), 남미(3.06점) 순으로 한국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남미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남미 지역의 재외동포가 장기체류자이기 때문에 교사들 또한 장기체류자이거나 현지 출신인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교사의 직위, 최종학력, 교사자격증 유무, 근무경력이 한국 유치원교육과정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담임교사(4.07점)가 보조교사(2.67점)에 비해 훨씬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자격증이 있는 경우(4.28점)가 없는 경우(2.77점)보다 한국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있는 교사의 수급이 어려워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하기도 실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한국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10〉 한국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평균
전체	1.9	11.5	19.2	28.8	38.5	100.0(52)	3.9
지역							
동남아	-	-	-	37.5	62.5	100.0(8)	4.6
중국/일본권	4.3	-	17.4	39.1	39.1	100.0(23)	4.1
중동/러시아	-	-	-	40.0	60.0	100.0(5)	4.6
남미	-	37.5	37.5	6.3	18.8	100.0(16)	3.1
직위							
담임교사	-	8.7	19.6	28.3	43.5	100.0(46)	4.1
보조교사	16.7	33.3	16.7	33.3	-	100.0(6)	2.7
최종학력							
고졸	-	100.0	-	-	-	100.0(1)	2.0
대졸	2.3	11.4	18.2	34.1	34.1	100.0(44)	3.9
대학원 졸	-	-	28.6	-	71.4	100.0(7)	4.4
교사자격증 유무							
유	2.6	-	15.4	30.8	51.3	100.0(39)	4.3
무	-	46.2	30.8	23.1	-	100.0(13)	2.8

민족정체성 교육을 실천하는 정도를 보면, 58.7%의 교사가 민족정체성 교육을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중동/러시아에서, 담임교사이거나 교사자격증이 있는 교사의 경우, 민족정체성 교육을 알고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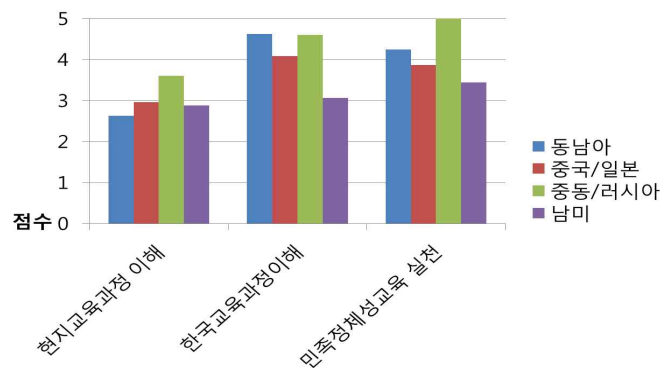
〈표 IV-11〉 민족정체성 교육 실천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평균
전체		5.8	36.5	19.2	38.5	100.0(52)	3.9
지역							
동남아	-	-	25.0	25.0	50.0	100.0(8)	4.3
중국/일본권	-	4.3	34.8	30.4	30.4	100.0(23)	3.9
중동/러시아	-	-	-	-	100.0	100.0(5)	5.0
남미	-	12.5	56.3	6.3	25.0	100.0(16)	3.4
직위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약간 그리함	매우 그리함	합계	평균
담임교사	-	2.2	39.1	15.2	43.5	100.0(46)	4.0
보조교사	-	33.3	16.7	50.0	-	100.0(6)	3.2
교사자격증 유무							
유	-	-	35.9	20.5	43.6	100.0(39)	4.1
무	-	23.1	38.5	15.4	23.1	100.0(16)	3.4

재외병설유치원 교사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교육과정 관련 역량을 지역별,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교육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역량을 비교한 결과,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실천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현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교육과정 관련 교사역량 비교

교사가 수업이나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4%로 파악되었다. 교사 배경 변인별로 담임교사보다 보조교사가 언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현지출신 교사가 보조교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지역권이나 다른 교사배경 변인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까지 합하여 84.7%의 교사가 수업이나 유아, 동료와의 상호작용 시 언어적 어려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이 다른 유아를 지도함에 있어서 전체 교사 중 55.8%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84.6%에 이른다. 지역권별로 남미지역이, 담당 유아연령이 2세인 경우,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어릴수록 모국어만으로 소통하며 언어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표 IV-12〉 언어발달이 다양한 유아를 가르치는 어려움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약간 그려함	매우 그려함	합계	평균
전체	15.4	40.4	28.8	9.6	5.8	52(100.0)	2.50
담당 유아 연령							
2세	16.7	16.7	16.7	16.7	33.3	6(100.0)	3.33
3세	21.4	57.1	14.3	7.1	-	14(100.0)	2.07
4세	9.1	36.4	45.5	-	9.1	11(100.0)	2.64
5세	23.1	38.5	23.1	15.4	-	13(100.0)	2.31
혼합연령	-	37.5	50.0	12.5	-	8(100.0)	2.75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유아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수 과다와 수업시간 및 특별활동 과다로 인한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족이었다.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재원 유아의 다양한 언어종류 및 구사 능력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특별활동 및 언어교육(한국어, 영어, 현지어 등)으로 담임교사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업무과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문화의 차이나 다문화가정 유아의 소극적인 성격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연수

가. 교사연수 기회

최근 3년 동안 교사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응답한 전체교사의 절반 정도(53.5%)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담임교사(55.3%)가 보조교사(40%)보다, 교사학력이 높을수록 연수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졸교사 47.2%, 대학원졸 교사 85.7%). 또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가 10년 이하인 교사보다 연수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년 이상의 80% > 2-5년의 41.7% > 2년 이하의 40% > 5-10년의 36.4%). 교사자격증 유무와 담당유아 연령에 따른 연수경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남미지역에 연수경험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3〉 최근 3년 동안 교사연수 참여 횟수

구분	단위 : %(명)		합계
	연수경험 있음	연수경험 없음	
전체	53.5	46.5	100.0(43)
근무경력			
2년 이하	40.0	60.0	5(100.0)
2~5년	41.7	58.3	12(100.0)
5~10년	36.4	63.6	11(100.0)
10년 이상	80.0	20.0	15(100.0)
동남아	50.0	50.0	6(100.0)
중국/일본권	61.9	38.1	21(100.0)
중동/러시아	50.0	50.0	4(100.0)
남미	41.7	58.3	12(100.0)

나. 교사연수 내용과 방식

개별 재외병설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사연수 내용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법’(11개월)이 가장 많으며, ‘언어교육방법’과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법’,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그 다음 순으로 조사되었다(각각 5개월씩). 연수방식으로 원내 동료장학(12개월)이 월등히 많으며, 한국전문가 초청연수(6개월) 및 공개수업(6개월)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연수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연수내용은 재외한국학교 교사연수(15.8%), 다중지능교육(10.5%) 등이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점으로 ‘교수학습 지도력 강화’, ‘교육 내용’, ‘한국 유치원교육에 대한 동향 및 최신 교수학습 정보 습득’, ‘연수 참여교사들과 교육적 소통’,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이해’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수시간을 살펴보면, 10시간미만(53.8%)이 가장 많으며, 연수 일수는 4일 이상(61.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23.1%, 2일과 3일 각 7.7%).

〈표 IV-14〉 교사연수 내용 및 방식

국가명	유치원명	연수 내용						연수 방식						
		현지적응	교육과정 교수법	정체성 교육	언어교육 방법	아동상호 작용	부모의사 소통	연수기관	타기관 수참관	한국초청 연수	교장학 장	동료장학	공개연구 수업	외부강사 초빙
일본	건국학교		0					0	0					
중국	북경											0		
	천진	0	0	0	0	0	0					0	0	
	무석	0	0							0		0	0	
	칭다오청운		0									0		
	선양	0	0	0	0		0					0	0	
홍콩		0					0		0		0			
타이완	타이베이											0		
베트남	호치민											0		
사우디	리야드		0	0		0	0				0		0	
	젯다				0			0		0				
싱가포르	싱가포르													
파라과이	파라과이	0	0		0	0	0			0		0	0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0		0	0						0	0	
브라질	브라질		0			0	0			0		0		
러시아	모스크바		0							0		0	0	
계		4	11	3	5	5	5	3	1	6	1	12	6	1

다. 교사연수 비용 지원

재외병설유치원 교사 응답에 의하면, 교사연수시 한국학교 및 유치원에서 지원하는 비중은 33.3%에 불과하며 대다수(66.7%)가 연수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교 중 연수비용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한 6개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연간 총 7,196천원이 46명의 교사에게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1인당 연간 연수비용 지원액 약 156천원 수준).

〈표 IV-15〉 연간 교사연수 지원 비용

단위 : 명, 천원

유치원명	연수 지원			유치원명	연수 지원		
	인원	지원 총액	1인당 지원액		인원	지원 총액	1인당 지원액
건국(일)	5	1,667	333	싱가포르	7	2,695	385
선양(중)	8	178	22	리야드	1	100	100
홍콩(중)	24	2,000	83	젯다	1	556	556

1인당 평균 지원총액 : 약 156천원 [7,196천원(지원총액)/46명]

라. 교사연수의 문제점 및 선호도

재외병설유치원 교사연수 관련 가장 애로사항으로 ‘연수기회 자체가 별로 없음’(49.1%)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연수비용 지원 부족’(15.1%), ‘연수일자 및 시간의 부적절’(13.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연령,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많은 교사들이 연수기회의 부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혼합연령반 교사의 경우 단일연령반 교사에 비하여 ‘연수기회 부족’을, 2세 영아담당교사는

〈표 IV-16〉 교사연수 관련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연수내용 부실	연수일자 및 시간 부적절	현지어 이해부족으로 효과 미비	연수비용 지원부족	근무기관 협조받기 어려움	연수기회 부족	기타	합계
전체	7.8	15.6	6.3	12.5	6.3	43.8	7.8	51(100.0)
담당유아연령								
2세	25.0	12.5	12.5	-	-	37.5	12.5	6(100.0)
3세	5.3	21.1	10.5	15.8	15.8	31.6	.0	13(100.0)
4세	6.7	20.0	6.7	13.3	-	46.7	6.7	11(100.0)
5세	7.1	7.1	-	21.4	7.1	42.9	14.3	13(100.0)
혼합연령	-	12.5	-	-	-	75.0	12.5	8(100.0)
지역								
동남아	-	-	-	-	-	50.0	50.0	8(100.0)
중국/일본권	3.1	21.9	3.1	25.0	3.1	40.6	3.1	22(100.0)
중동/러시아	20.0	20.0	-	-	-	60.0	-	5(100.0)
남미	15.8	10.5	15.8	-	15.8	42.1	-	16(100.0)

‘연수내용 부실’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동남아 재외병설유치원 교사의 대부분이 연수기회의 부족을 응답한 반면, 중동/러시아권 교사의 경우 ‘연수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음’(25%)을 지적하여 연수내용의 질 향상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외병설유치원교사들은 가장 필요한 현직연수 내용으로 한국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27.9%), 한국어와 현지어 및 외국어 교수방법(24.4%), 민족정체성교육 방법(17.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교사의 연령, 직위, 최종학력, 교사자격증 유무, 담당 유아 연령, 지역, 근무경력에 관계없이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7〉 가장 필요한 현직연수 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주재국 교육과정 에 대한 이해	한국 교육과정 에 대한 이해	민족 정체성 교육 방법	한국어 현지어외 국어 교수방법	유아 발달 지식	특수아 지도	부모 와 의사 소통	교수 매체 활용 방법	기 타	합계
전체	8.1	27.9	17.4	24.4	5.8	3.5	7.0	2.3	3.5	43(100.0)
연령										
20대	8.6	25.7	20.0	25.7	-	2.9	8.6	5.7	2.9	15(100.0)
30대	9.8	26.8	17.1	22.0	9.8	2.4	7.3	-	4.9	22(100.0)
40대	-	40.0	10.0	30.0	10.0	10.0	-	-	-	6(100.0)
지역										
동남아	9.1	36.4	18.2	27.3	-	-	9.1	-	-	6(100.0)
중국/일본권	10.5	23.7	18.4	18.4	5.3	2.6	10.5	2.6	7.9	21(100.0)
중동/러시아	-	22.2	22.2	22.2	11.1	11.1	.0	11.1	-	4(100.0)
남미	7.1	32.1	14.3	32.1	7.1	3.6	3.6	-	-	12(100.0)
근무경력										
2년 이하	11.1	22.2	11.1	33.3	-	11.1	11.1	-	-	5(100.0)
2~5년	10.0	26.7	23.3	26.7	3.3	-	3.3	3.3	3.3	12(100.0)
5~10년	5.3	36.8	10.5	15.8	10.5	5.3	5.3	5.3	5.3	11(100.0)
10년 이상	7.1	25.0	17.9	25.0	7.1	3.6	10.7	-	3.6	15(100.0)

가장 선호하는 교사연수방법으로, ‘한국방문연수’(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강사 초빙연수’(23.8%), ‘재외한국학교 교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상호방문, 정보공유 등)’(15.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지에서 현지강사가 직접 연수’ 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40대교사(50%), 대졸 교사(41.1%)가 한국방문 연수를, 대학원 졸업 이상 교사는 ‘한국 파견강사의 현지연수(44.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8〉 가장 선호하는 교사연수 방법

단위 : %(명)

구분	한국강사 초빙연수	현지강사 현지연수	한국인터넷 연수	현지인터넷 연수	원내자율 동료장학	한국방문 연수	재외교사 네트워크	합계
전체	23.8	3.6	13.1	2.4	2.4	38.1	15.5	52(100.0)
연령								
20대	20.6	5.9	17.6	2.9	2.9	38.2	11.8	18(100.0)
30대	29.4	.0	11.8	2.9	2.9	32.4	20.6	25(100.0)
40대	18.8	6.3	6.3	.0	.0	50.0	12.5	9(10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21.0	2.7	12.0	2.7	2.7	41.1	16.0	45(100.0)
대학원 졸	44.4	11.1	22.2	.0	.0	11.1	11.1	7(100.0)
지역								
동남아	30.0	.0	10.0	.0	.0	50.0	10.0	8(100.0)
중국/일본권	35.3	2.9	11.8	.0	.0	32.4	17.6	23(100.0)
중동/러시아	.0	.0	12.5	12.3	.0	37.5	25.0	5(100.0)
남미	15.6	6.3	15.6	3.1	6.3	40.6	12.5	16(100.0)

3.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별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은 전화상담(26.1%), 가정통신문(22.4%), 등하원시 면대면 대화 방법(19.3%) 순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라, 대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교사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교사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홈페이지 활용 2.3% < 12.0%, 설문조사 실시 1.5% < 8.0%).

근무경력에 따라, 2년 이하 경력의 교사는 가정통신문과 면대면 대화(등하원시)를 가장 선호했으며(각각 25%), 2-5년, 5-10년,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는 전화 상담 방법을 가장 선호했다(23.7%, 29.6%, 26.8%). 교사의 연령, 직위, 자격증 유무, 담당 유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동남아권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전화 상담(24.2%)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중국/일본권 교사들은 전화 상담(25.8%)과 가정통신문(24.2%)을 선호하였다. 특히, 중동/러시아권 교사들은 전화 상담(5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가정통신문(25%)을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 반면, 남미지역의 교사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집단/대집단 부모모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

〈표 IV-19〉 개별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

단위 : %(명)

구분	가정 통신문	면대면 대화 (등하원시)	소집단/ 대집단 부모모임	교사- 부모 협의회	전화 상담	홈페이 지 활용	설문 조사	기타	합계
전체	22.4	19.3	6.2	13.0	26.1	3.7	2.5	6.8	52(100.0)
담당 유아연령									
2세	16.0	20.0	12.0	12.0	24.0	12.0	4.0	.0	6(100.0)
3세	24.4	17.1	7.3	4.9	31.7	.0	2.4	12.2	14(100.0)
4세	26.3	18.4	2.6	18.4	23.7	2.6	2.6	5.3	11(100.0)
5세	20.5	20.5	7.7	15.4	23.1	5.1	.0	7.7	13(100.0)
혼합연령	22.2	22.2	.0	16.7	27.8	.0	5.6	5.6	8(100.0)
지역									
동남아	15.2	18.2	6.1	18.2	24.2	9.1	6.1	3.0	8(100.0)
중국/일본권	24.2	16.1	1.6	11.3	25.8	3.2	3.2	14.5	23(100.0)
중동/러시아	25.0	.0	.0	12.5	50.0	.0	.0	12.5	5(100.0)
남미	24.1	25.9	12.1	12.1	24.1	1.7	.0	.0	16(100.0)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한국인 배우자 및 조부모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34.8%, 원어민 교사 또는 현지인 교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33.3%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한 ‘기타’(이메일, 문자 등)가 25.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기타’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20대 : 34.6 > 30대 : 23.3% > 40대 : 10%), 40대 교사는 ‘한국인 배우자 및 조부모를 통하여 전달’과 ‘원어민 교사 또는 현지인 교사 등을 활용’이 각각 40%로 두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교사가 ‘동일 출신국 학부모 활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10년 이상의 경력교사의 절반 정도(47.1%)가 ‘한국인 배우자 및 조부모를 통한 전달’을 선호했다.

지역별로 남미지역은 교사의 대부분이 ‘원어민 교사 또는 현지인 교사 등을 활용’과 ‘기타’ 방법을 이용한다고(85.8%) 응답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한국인 배우자 및 조부모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0〉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단위 : %(명)

구분	한국인 배우자 및 조부모 활용	동일출신국 학부모 활용	원어민/현지인 교사 활용	별다른 의사소통 채널없음.	기타	합계
전체	34.8	3.0	33.3	1.5	25.8	52(100.0)
연령						
20대	30.8	7.7	26.9	.0	34.6	18(100.0)
30대	36.7	.0	36.7	3.3	23.3	25(100.0)
40대	40.0	.0	40.0	.0	10.0	9(100.0)
근무경력						
2년 이하	27.3	9.1	27.3	.0	36.4	8(100.0)
2~5년	25.0	5.0	35.0	.0	35.0	13(100.0)
5~10년	38.9	.0	38.9	5.6	16.7	16(100.0)
10년 이상	47.1	.0	29.4	5.9	17.6	15(100.0)
지역						
동남아	54.5	18.2	27.3	.0	.0	8(100.0)
중국/일본권	40.0	.0	40.0	.0	20.0	23(100.0)
중동/러시아	60.0	.0	20.0	20.0	.0	5(100.0)
남미	10.0	.0	30.0	5.0	55.8	16(100.0)

4. 질 관리 및 평가

가. 질 관리감독 체제

재외병설유치원 16개원 가운데, 외부에 의한 교육의 질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5개원에 불과하다. 이 중 4개원(건국, 홍콩, 타이베이, 리야드)은 영사관, 대사관, 한국대표부의 감독을 연1회(리야드는 연 6회) 받으며, 아르헨티나 병설유치원은 주재국 장학사에 의한 감독을 받고 있다. 나머지 12개원은 자체적으로 질 관리하며 일부 병설유치원(천진, 홍콩,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5개원)은 질 관리감독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있다.

질 관리감독은 연간 1회(4개원), 연 2회(5개원), 연6회 이상(2개원 : 싱가포르, 리야드), 연10회(천진) 및 수시로(4개원 : 무석, 호치민, 쟈다, 브라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적인 관리감독인 경우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관리감독 방식은 주로 수업관찰 및 서류검토, 면담으로 이루어지며, 싱가포르의 경우는 학부모 간담회 및 설문조사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참여를 유도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에서는 질 관리감독의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칭다오, 싱가포르, 호치민에서는 교사 재임용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선양의 경우는 영사관 재정 및 회계운영 지도에 활용하며, 리야드 역시 예산 수립에 반영하고, 싱가포르에서는 교사 성과급에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질 관리감독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21〉 병설유치원 항목별 자체 평정 결과

학교명	관리감독 주체	빈도	방식	결과 활용 방법
건국(일)	외부	연1회	수업 관찰 서류 검토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북경(중)	자체	연2회	수업 관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천진(중)	자체 학부모	연2회	수업 관찰, 면담 서류 검토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교사 재임용 평가 자료로 활용
무석(중)	자체	수시	수업 관찰, 면담 서류 검토	연간, 월간, 주간 업무에 반영
칭다오(중)	자체	관리감독: 주1회 평가회: 연2회	면담, 서류검토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교사 재임용 평가 자료로 활용
선양(중)	자체 영사관	연2회	서류 검토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영사관 재정 및 회계운영 지도에 활용
홍콩(중)	자체 학부모 영사관	연2회 연1회 연1회	감사, 면담 서류 검토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타이베이(타)	한국대표부	연1회	수업 관찰 서류 검토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싱가포르	자체 학부모	연6회 이상	동료평가, 공개 수업, 학부모 간담회, 설문조사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교사 성과급 지급시 반영 교사 재임용 평가 자료로 활용
호치민(베)	자체	수시	수업 관찰	교사 재임용 평가 자료로 활용
리야드(사)	대사관	연6회	수업 관찰, 면담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예산 수립에 반영
젯다(사)	자체	수시	수업 관찰, 면담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모스크바(러)	자체		수업 관찰, 면담 서류 검토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파라과이	자체	연10회	수업 관찰, 면담 서류 검토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이르헨터나	주재국 장학사 학교 이사회 감사	연2회	수업 관찰, 면담 서류 검토	교육 자료 및 정보 공유
브라질	자체 학교 이사회	수시	서류 검토, 면담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나.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자체 평정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련된 16가지 항목에 대해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한국학교 기관장(교장, 교감, 원장, 원감)이 자체 평정한 결과를 다음 표에 항목별 평균 점수로 제시하였다. 가장 개선이 요구된다고 응답한 항목은 교원 연수(2.2/5점)이며, 시설환경(2.4/5점), 지역사회와의 연계(2.4/5점), 교재·교구 및 놀잇감(2.5/5점), 주재국 교육과정과의 연계(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부모 참여 및 가정과의 교류(4.2/5점)이며 교육프로그램(3.8/5점),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3.8/5점) 등이다.

〈표 IV-22〉 병설유치원 항목별 자체 평정 결과

항목	평정결과	항목	평정결과
운영시간	3.6	부모 참여 및 가정과의 교류	4.2
시설 환경	2.4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2.4
교재·교구 및 놀잇감	2.5	주재국 교육과정과의 연계	2.6
비용	2.7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3.8
교육프로그램	3.8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3
건강위생 및 안전관리	3.5	유아의 한국문화 이해	3.6
급식, 간식	3.0	교사 전문성 및 자질	3.5
등·하원 방법	3.2	교원 연수	2.2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교원 연수의 개선 사항은 연수 기회 필요와 교사 전문성 향상이다. 교원 연수에 있어 일단 해외에 있는 교사의 연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극소수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감 및 원장 연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V.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지원 요구

1. 기관의 지원 요구

응답한 대부분의 기관은 우선적으로 유아교육비,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병설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없이 운영됨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를 학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유치원 재정이 빈약하여 기관 운영 및 교사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재외병설유치원의 균형잡힌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재·교구와 교수자료의 지원, 교사교육 및 연수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는 재외병설유치원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사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재·교구가 매우 부족하고 낙후한 것에 기인한다.

그 이외에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비용지원을 요청하였다. 대만의 경우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협소함과 교사 수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분리된 단독건물(유치원자료실, 실내 놀이터) 지원과 재외 교사간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미지역의 경우, 이중문화, 삼중언어 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한글교육을 위한 한글교재 개발과 교구·교재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중동지역의 경우 한국정부에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실정이므로 설립인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표 V-1〉 기관별 건의사항/정책 제안

국가명	학교명	지원 요구 및 정책 제안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비 지원 - 교사 경력에 따른 호봉으로 급여 지급 - 정기적으로 한국유치원에서 나오는 교육청 자료 발송 - 교사 연수와 교재, 교구, 도서의 공급 - 현지에 파견된 한국기업체들의 한국유치원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 (기자재의 공급, 견학활동협조 등)
	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설유치원에 초빙된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 - 부모교육 강사 및 강의 지원 - 다양한 교사 연수 참여 기회 확대
	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 및 각 시도 교육청 개발한 장학자료 보급 - 본국에 준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토록 전반적인 지원 요망 - 구체적 실물교구재를 정부가 직접보급

	칭다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비 지원 - 다양한 교육 재반시설과 놀이시설 설치 - 교재, 교구 및 교수자료 지원 - 교사 연수 기회 확대 및 자격연수를 통한 교사 승진 기회 제공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강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부모교육 제공 - 급당 인원수 감소 요망(홍콩은 학급당 최대 15명) - 보조교사 배치로 유치원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타이완	타이 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 유치원교사간의 연결망 필요 - 유치원운영을 위한 연수 필요(사물놀이, 재외유아 언어교육 등등) -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월급, 주택보조금 등, 누리과정 연수, 누리과정 수당 받지 못함) - 초등과 분리된 단독 건물(유치원을 위한 별도 자료실, 실내 놀이터 등) - 초임교사 교육 필요
베트남	호치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본국 우수교사 선발파견 및 본국연수 지원)
사우디	리야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
	젯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설유치원 설립인가 및 운영 예산 지원
파라과이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운영 재정 지원
아르헨 티나	아르헨 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 개선(중축 또는 새로운 부지나 건물 구입 희망) - 지속적인 교사 연수 기회 제공 (강사진 파견, 고국방문연수, 사이버 대학이나 온라인 강좌 수강 지원) - 교구재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글교재 개발 - 교사인건비 지원 - 유초와 연결되도록 중고등학교 설치
브라질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연수의 제도화(매년 실시) - 한국 내 사립유치원과의 자매결연으로 교재 및 교구 공급 혜택 기회

2. 교사의 지원 요구

재외동포 병설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가 필요로 하는 정도를 교육과정 부문(운영의 자율성 부여, 컨설팅 지원, 교구재 지원)과 교사연수 및 근무여건 부문(교사연수, 근무평정 개선, 경력인정, 근무여건 개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 운영 관련 요구

응답한 전체교사의 절반이상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76%). 교사의 연령, 직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라, 대졸 이하 학력을 가진 교사가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교사보다 자율권 부여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52.4%, 42.9%). 지역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의 자율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필요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은 응답한 교사 전체의 84%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담당 유아 연령에 따라, 4세와 5세반을 담당하는 교사의 '보통임' 응답률이 다른 연령 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4세 40%, 5세 23.1%). 지역별로, 중동/러시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전체가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 지역의 컨설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응답한 교사 전체(100%)가 교구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8.5%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임교사가 보조교사보다(매우 필요함 91.3% > 66.7%), 담당 유아 연령, 근무경력,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들이 교구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교구재 지원의 필요성

구분	필요	매우 필요	합계	평균
전체	11.5	88.5	52(100.0)	
담당 유아 연령				
2세	.0	100.0	6(100.0)	5.00
3세	28.6	71.4	14(100.0)	4.71
4세	9.1	90.9	11(100.0)	4.92
5세	7.7	92.3	13(100.0)	4.91
혼합연령	.0	100.0	8(100.0)	5.00
지역				
동남아	.0	100.0	8(100.0)	5.00
중국/일본권	8.7	91.3	23(100.0)	4.91
중동/러시아	20.0	80.0	5(100.0)	4.80
남미	18.7	81.3	16(100.0)	4.81

나. 교사 연수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

재외동포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대부분이(90.2%) 교사 연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러시아지역의 교사 전체가 교사연수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동남아권 근무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필요함 12.5%, 매우 필요함 50%).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필요함 42.9%, 매우 필요함 44.9%). 연령이 높을수록(20대는 82.4%, 30대는 88%, 40대는 100%), 교사자격소지자가,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동남아와 중국/일본권 지역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정도가 높고(동남아, 100%, 중국/일본, 95%), 파라과이와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평균 3.50, 3.00).

근무 성적 평정(교사평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교사의 절반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필요함 412%, 매우 필요함 26%). 교사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2년 이하 50%, 2-5년 69.3%, 5-10년 68.8%, 10년 이상 77%) 근무 성적 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4〉 교사근무 성적 평정 개선의 필요성

단위 : %(명), 점

구분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평균
전체	32.0	42.0	26.0	100.0(50)	
지역					
동남아	-	50.0	50.0	8(100.0)	4.50
중국/일본권	23.8	42.9	33.3	21(100.0)	4.10
중동/러시아	60.0	40.0	-	5(100.0)	3.40
남미	50.0	37.5	12.5	16(100.0)	3.63
근무경력					
2년 이하	50.0	50.0	-	8(100.0)	3.50
2~5년	30.8	38.5	30.8	13(100.0)	4.00
5~10년	31.3	37.5	31.3	16(100.0)	4.00
10년 이상	23.1	46.2	30.8	13(100.0)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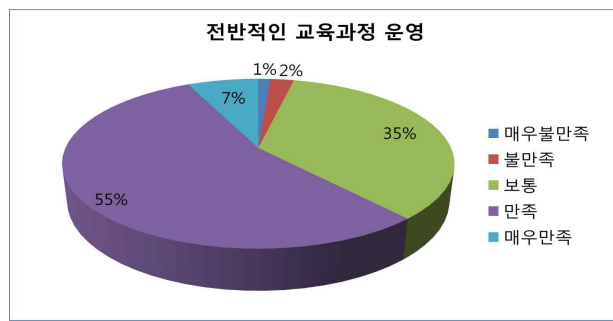
병설유치원 학급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교구재 조달의 어려움 및 유치원 교실 협소가 60.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부모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다양한 요구가 18.5%로, 개선방법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병설유치원 운영이나 지원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1순위는 교재교구 조달 및 유치원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 47.7%, 2순위는 교사연수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 36%이며,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가 9.2%로 응답되었다.

3. 학부모의 만족도 및 지원 요구

가. 학부모 만족도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경우(54.7%)가 가장 많았고, 보통인 경우(34.9), 매우 만족함(7.0%)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 점수는 3.64점이며,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졸업 이상인 경우 다른 부모에 비해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대로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V-1]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한국과의 연계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7.0%, 만족이 41.9%, 보통이 48.8%, 불만족이 2.3%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음을 보인다(전체 평균 점수 3.54점). 부모의 체류 상황별로 보면 3년 이하의 단기체류보다 장기 체류 부모의 만족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단기체류자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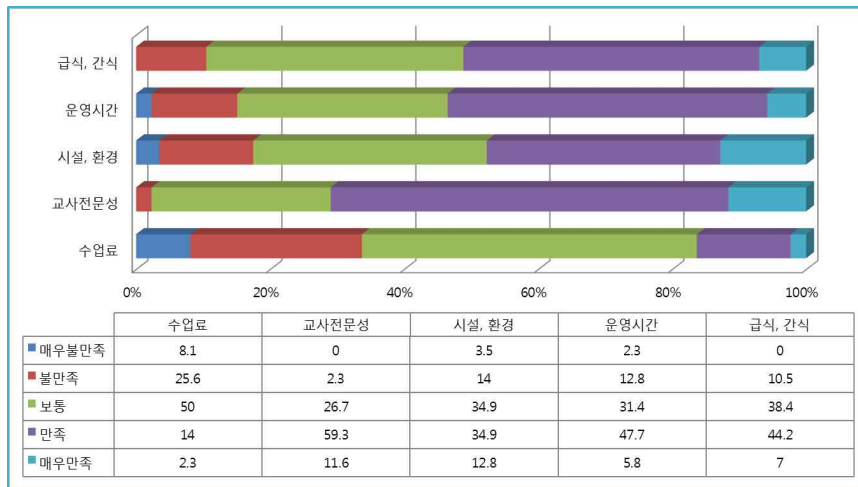
<표 V-5> 부모의 한국 연계 교육과정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전체	0	2.3	48.8	41.9	7.0	100(86)	3.54
지역							
동남아	0	3.1	62.5	25.0	9.4	0	3.25
중국/일본권	0	2.1	38.3	53.2	6.4	0	3.61
중동/러시아	0	0	57.1	42.9	0	0	4.20

국 연계 교육과정을 굳이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어 교육이나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초점을 둘 수 있고, 반대로 수년내 한국 교육 체제 속으로 편입해야 하므로 한국 연계 교육과정을 더 중요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번 결과는 장기체류 부모들이 한국 연계 교육과정에 더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정 운영 일반적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교사의 전문성이며 그 다음이 운영 시간 및 급식·간식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매우만족+만족)은 70.9%로 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사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반면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수업료로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8.1%이며 만족한다는 의견은 16.3%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에 이주한 학부모는 한국에서 교육·보육비를 지원받다가 해외에서 받지 못하게 되거나, 한국 상황과 비교하여 수업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



[그림 V-2] 교육과정 운영 일반적 사항에 대한 만족도

언어교육에 관련된 부모의 만족도 결과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다. 재외동포가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 교육인데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세 영역 중 가장 높다는 것은 병설유치원의 한국어 교육이 유아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한편, 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도 역시 높은데(평균 3.59점), 한국어 교육정도 만족도를 보이며, 현지어 교육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현지 적응 교육이나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가 점점 늘어나면

서 현지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현지어 교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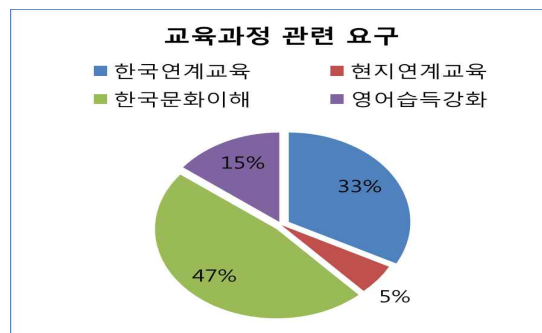
〈표 V-6〉 부모의 언어교육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임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한국어 교육	1.2	4.7	32.6	52.3	9.3	100(86)	3.64
현지어 교육	0	15.1	50.0	30.2	0	100(86)	3.01
영어 교육	0	5.8	37.2	48.8	8.1	100(86)	3.59

나. 학부모의 지원 요구

학부모의 지원 요구 파악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관련 요구와 병설유치원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사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관련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한국 연계교육, 영어 교육, 현지 연계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3] 교육과정 운영 관련 학부모 요구

병설유치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학부모에게 조사한 결과, 재정확보(29.1%)가 가장 많았고, 시설환경 개선(23.3%), 교구재, 도서 확충(20.9%)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낮았던 재정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학부모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 학부모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의 일치를 보인다. 이외에도 현지어교육 중에서도 특히 중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영어교육 시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특별 활동이나 야외 체험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재외병설유치원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를 원하였다.

교사 전문성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사 수 증원 및 자녀의

하루일과 기술을 요구하였다. 교사와 부모의 정보 공유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한국에서 최신의 교수법과 교육정보를 갖춘 젊은 교사들로 지속적으로 순환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일부 학부모는 잦은 교사 교체로 불안함을 표출하므로 양면적이며,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교사 수급과 이직률 감소로 보다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병설유치원 미설치 재외한국학교의 지원 요구

가. 일반 현황

현재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외한국학교는 총 14개교로 9개국에 소재하고 있다. 중국에 소재한 학교가 4곳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에는 3개교가 있다. 이 14개교에는 총 5,61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까오슝, 테헤란과 카이로 3개교에는 초등학교과정만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11개교는 모두 고등학교과정까지 운영되고 있다.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에는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여타의 재외한국학교가 있다.

나. 병설유치원 설치 계획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외한국학교 중 5개교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9개교는 아직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사카 금강과 연변은 학교측에서는 설치하기를 희망하나, 현재로서는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보고함). 설치할 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요구도가 낮기 때문에’(5개교) ‘재정이 부족해서’(3개교),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2개교)와 현지의 ‘한인 사립유치원의 견제’(2개교)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한국과 주재국 정부의 비협조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학교는 없었다.

한편, 설치 계획 중인 6개교 모두 지역사회의 높은 요구도로 인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하노이와 자카르타는 ‘한인 유아수가 증가’로 인하여, 방콕은 ‘초등학교 학생의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유치원 과정부터 제공하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계획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살펴본 결과, 하노이 한국학교는 2012년 9월에 설치할 계획이고, 일본은 2017~2018년에 설립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 1~2개 학급의 규모에 원아수는 최대 5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4개교에서는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10〉 병설유치원의 설치 계획

국가명	학교명	병설유치원 설립계획년도	건물 소유	건물 이용	학급계획		돌봄 서비스
					학급수	학생수	
일본	오사카금강	2017~2018 4월	소유	공용	1	20	○
중국	대련	2013년 3월	소유	공용	1	25	○
	연변	-	소유	공용	1	-	-
타이완	까오슝	2013년 8월	소유	공용	1	10	×
베트남	하노이	2012년 9월	임대	공용	2	35~4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4년 3월	소유	단독	2	50	○
태국	방콕	-	소유	공용	2	20	×
필리핀	필리핀	2015년 3월	소유	공용	1	20	○

주 : 1. 오사카 금강학교는 설립이 결정되었을 시의 계획을 작성함.
 2. 돌봄서비스: 오후 3시 이후 및 주말 등에 제공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계획인 8개교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받고자 하는 지원 요구를 조사한 결과, 교사 인건비(6개교)와 교재교구 제공(5개교)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재정적 지원과 교사 연수 제공에 대한 지원도 각각 2개교에서 요구하였다. 대련과 자카르타는 유치원을 위한 교재교구와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원했고, 연대, 하노이 그리고 방콕은 병설유치원의 설립 전반에 대한 매뉴얼 내지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표 V-11〉 병설유치원 설립 시 요구되는 정부 지원 형태(복수응답)

국가명	학교명	정부 지원 형태				
		재정	교사인건비	교재교구	교사연수	기타
중국	대련	○	○			교재교구 및 교육과정 자문
	연변	○	○			-
	연대	○	○			병설유치원 설립관련 자문 및 매뉴얼
타이완	까오슝	○	○	○		보조교사 수급
베트남	하노이	○	○	○		병설유치원 설립관련 자문 및 매뉴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			교육과정 운영 자문
태국	방콕	○				병설유치원 설립관련 자문 및 매뉴얼 교원 수급/ 학부모 교육 지원
필리핀	필리핀	○	○			-
8개교		2	6	5	2	

요구하였다. 까오슝과 방콕은 교사 인력을 수급받기를 원했고, 방콕은 학부모교육(예 : 한국유치원의 필요성, 비교언어학, 발달교육심리학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VI.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지원 방안

1. 지원정책 방향

생애초기부터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의 제반 권익보장과 민족적 유대감 강화’는 재외동포 육아지원정책의 대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전제에 기초하여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의 지원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 다양한 가족배경의 개별유아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며 최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실한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글과 우리문화이해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되, 이는 민족적 우월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교육과 문화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리글과 문화이해 교육을 위하여 재외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 자녀가 주로 취원하고 있는 일본과 남미지역 재외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더욱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생애 초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재외병설유치원이 우리문화와 타문화, 우리교육과 타 교육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여 유아들이 풍부한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일종의 ‘문화적 브로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의 비전을 설정한다. 특히, 현지 교육체제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다(예 : 필리핀 교사의 상세한 서술식 유아발달 평가 및 부모와의 빈번한 정보 공유, 중국의 경우 유치중고등 건물이 한 건물내에 위치하여 상급학교와의 연계가 용이한 점 등).

셋째, 재외병설유치원 교사의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한국에서의 파견교사제도 폐지로 인하여 개발도상국가일수록 우수한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며, 이는 재외병설유치원교육의 질에 매우 치명적이다. 본 연구의 교사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16개 재외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절반이나 전혀 교사연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외병설유치원 교육에의 부모 참여를 최대한 유도한다. 일본 건국학교와 남미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의 해외체류는 직장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차 체류하거나, 자녀 유학, 또는 부모의 일시 유학이나 사업상 단기체류하는 경우로, 국내에서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학부모 역시 국내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른 문화체험과 습득, 외국인과의 교류 등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재외병설유치원 교육을 알리고 부모와 교사, 가정과 병설유치원간의 협력을 넘어서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한다.

다섯째, 재외병설유치원의 운영에 있어서 현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극대화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상당수의 재외한국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경우, 현지 국가의 유치원 및 교육원, 심지어는 현지 한인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가 미미한 수준으로 현장학습 등에 있어서 제한점을 호소하였다.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현지 유관기관을 발굴하여 상호교류 및 활용한다.

2. 세부과제 및 추진 전략

가. 교육기회 확대 방안

1) 재외병설유치원 인가 승인 및 설치 확대

재외병설유치원 이용에 대한 정기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세계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무엇보다도, 유아기의 발달과 학습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재외병설유치원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미 20여년 가까이 정부지원없이 운영되어 온 중동의 젃다 등의 병설유치원은 정원충족율이 낮아 설립인가를 아직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인구 증대에 따른 수요가 예상되는 곳에 인가 승인 및 지원이 요구된다.

2) 재외병설유치원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 지원

대다수의 면담한 학부모는 바우처 형태든, 기관지원이든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취약소외계층의 유아에게는 학비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재외병설유치원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에게 교육비 형태로 모두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나. 기관운영관리 및 시설환경

2013년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자 계획하는 재외한국학교가 3군데 이상으로 조사

되었다(태국, 대련, 하노이 등). 관련법규, 유치원 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교구재 및 교실환경 구성, 제반 유치원 운영 관련 양식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설치하는 병설유치원을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보다 용이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사정으로 양질의 교구재 구입이 어려우므로 교구재 구비 기준 마련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설문결과 재외병설유치원 교사와 기관, 학부모 모두 교구재 지원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였다. 중앙부처의 전산 시스템 내지 외교부 알리미 채널 등을 통하여 보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최신 교구재와 도서를 신속히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재외병설유치원은 초중등학교 건물에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간이 대체적으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설환경의 현대화를 위하여 우수시설 환경에 대한 정보는 물론 무엇보다도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본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병설유치원교사가 유아는 물론 교사의 복지시설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일부 재외병설유치원은 공간 및 기후 관계로 실외놀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초등학생에 맞추어진 급간식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혼합연령반은 교재·교구 구비 및 안전 측면에서 단일연령반보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혼합연령반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여러 연령대의 유아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지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므로 현지유치원 및 박물관, 도서관 등의 제반 현지 지역사회기관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다.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지원

한국병설유치원 소재지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 교육과정과의 조화를 위한 것이며, 특히 현지교육의 특·장점을 발굴하고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 남미 등과 같이 유아들이 현지 초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유초연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등 국내의 우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활동자료집, 교사용 지도서를 재외 병설유치원이 소재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지에는 국내와 같이 장학사의 수업컨설팅 및 장학이 없으므로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할 유치원교육과정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현지 상황에 맞는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사가 보다 다양한 자료를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사의 업무 축소, 교사협의회나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라. 교사연수 체계화

무엇보다도 재외병설유치원 교원 연수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원 연수 내용과 방식, 시기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요구를 반영한 권역별 재외병설유치원 맞춤형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내 우수교사의 실제 수업장면 동영상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사지원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최소 연1-2회의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한국방문연수 및 전문가초빙 현지연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재외병설유치원 소재 권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교원들간의 학습공동체 형성 및 교류활동을 진작하여 동료학습, 자율장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천진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매주 자율장학을 실시하여 자체적인 교사연수가 활성화되어 있는 우수사례이므로, 사례집 발간, 사례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면 유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재외병설유치원에는 외국인교사가 근무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병설유치원 교사에게 자격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승급기회 제공 및 병설유치원 근무경력 인정이 필요하다.

마. 학부모 참여 유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재외병설유치원 및 한국학교 교육내용을 ‘제대로 알리기’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양육에 소홀하기 쉬운 맞벌이가정 부모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바. 질 관리감독 체제 구축

현재 재외병설유치원의 대부분이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질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 해당지역 대사관에서 재외한국학교와 병설유치원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그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감독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도에 재외동포교육과에서 한국학교장 평가지표를 개발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재외병설유치원 교육지표를 개발하여 교육적 투입과 산출, 성과를 매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지표를 토대로 무엇보다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더욱 활성화하여 해당부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학부모와 공유하도록 권장한다.

이상의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I-1〉 재외병설유치원 지원 정책방안 및 과제

정책 방안	세부과제	우선 과제	추진 시기	
			단기	중기
교육기회 확대	■ 재외병설유치원 인가 승인 및 설치 확대 (2012-14년도 설치계획 중인 한국학교 포함)	✓		○
	■ 재외병설유치원 운영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	✓		○
운영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	■ 재외병설유치원 운영 매뉴얼 및 지침 개발과 보급	✓	○	
	■ 교구재 구비 기준 마련 및 보급 시스템 도입 - 전담관리 인력 배치	✓	○	
	■ 재외병설유치원 건물의 현대화 - 급간식 공간 및 교사 복지공간 마련			○
	■ 현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물적 자원 활용	✓		○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지원	■ 현지 유치원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특히, 남미)			○
	■ 누리과정 등 국내 우수교육과정의 현지어 번역 및 보급 (교사용 지도서, 활동자료집 등)		○	
	■ 유치원교육과정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수업 컨설팅 지원 (온라인 및 방문)	✓	○	
교사연수의 체계화	■ 교사 연수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연수 내용, 방식, 시기 등		○	
	■ 권역별 재외병설유치원 맞춤형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수 모듈 구성)	✓	○	
	■ 재외병설유치원 교사간의 학습공동체 형성 및 네트워킹 - 동료학습, 자율장학 활성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배포			○
	■ 현지 외국인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 재외병설유치원 근무경력 인정	✓	○	

학부모 참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병설유치원 교육의 중요성과 우수성 홍보 - 다문화가정 및 맞벌이가정 부모 대상 효과적 홍보 전략 활용과 홍보대사 위촉 	✓	○	
	■ 재외병설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최소 연1회 학부모 전수 설문조사 실시 및 교육과정과 기관운영에 반영		○	
질 관리감독체 제 구축	■ 외부전문가에 의한 질 관리감독 연 1회 실시	✓	○	
	■ 자체평가 활성화(학부모 참여 의무화)		○	
	■ 질 관리감독 결과 공개 및 활용		○	

참고문헌

- 김준희(2008). 재외한국학교의 교육실태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곽효경·옥티투항(2008). 한국과 베트남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 비교 분석. 교육연구논총, 29(2), 141-166.
- 김성학(2004).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체성 및 한민족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원(2003).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해교육-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주(2010). 재외동포 아동학습자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21(1), 61-85.
- 류재택(2002). 한국어교재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체제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배진숙(2010). 재외한국학교 평가체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순실(2002). 귀국학생 교육의 실태 분석 및 귀국 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설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백희영(1999). 재미동포 가족의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 실태조사. 재외동포재단.
- 윤인진(2006). 사회조사방법을 통한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16, 5-44.
- 윤인진(2010). 재외동포의 현황과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31, 49-77.

- 이광규(2008). 재외동포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교포정책개발과 재외동포재단 비전설
정연구 : 교포정책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 정명숙(2010). 재외동포 유아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4), 295-317.
- 재외동포재단(2010a).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재외동포재단.
- _____ (2010b). 2010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재외동포재단.
- _____ (2010c).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재외동포재단
- _____ (2010d). 재외동포 현황. 재외동포재단.
- 진동섭 · 윤여탁 · 모경환 · 홍창남(2006). 재외동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비교교육연구, 16(2), 1-31.
- 최기수(2010). 재외한국학교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셋별(2008). 다문화사회 국제학교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21-28

사례 발표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사례

박정희 교장(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Kindergarten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병설유치원



이 곳은 어디이고,
이 곳의 아이들은 누구인가?



아이들은 외롭다
문화가 섞여있다
경계에 서 있다



아이들은 외롭다
문화가 섞여 있다
경계선상에 있다

유치원 어린이의 특징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 주로 주재원 자녀들이 주류를 이룸
- 체류기간은 평균 2-5년 정도
- 주 사용 언어 : 한국어, 영
- 주로 가정에서 도우미가 있어 양육 보조
- 유아들이 2-5세까지 연령차가 큼
- 국제결혼 자녀가 20% 정도



학부모 특징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 학력 수준이 대졸
- 경제적 수준이 중상위
-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큼
- 외국어 교육과 한국 정체성 교육에 대한 기대

Kindergarten의 Globalized Curriculum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1) 한국어, 영어, 중국어 교육 Trilingual System

- 한국 교육과정과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 한국과 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유아 육성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시간 편성
 - 영어 : 원어민 교사가 영어의 기초적인 phonics 지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말함
 - 중국어 : 노래와 찬트 등 흥미 중심의 중국어 교육 실시

Kindergarten의 Globalized Curriculum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2) Korean Cultural Identity Education

- 한글 문자 놀이 등을 통해 한국어 습득 및 이해
- 한국 문화를 통한 정체성 교육
 - 태권도, 장구, 소고 등의 전통 문화 활동



Kindergarten의 Globalized Curriculum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3) 국제문화 교류 및 이해교육

- 싱가포르의 현지PAP 공립유치원 및 국제 유치원과 교류 활동 실시
- 다문화 체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협동심과 배려심을 몸에 익힘



Kindergarten의 Globalized Curriculum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4) 창의 계발 활동 Creative Learning

-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예체능 활동을 통해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
- 'Happy Face' 쿠키 활동을 통해 오감을 통한 탐구심과 창의성 기쁨



Kindergarten의 Globalized Curriculum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5) 다양한 체험 활동 Field Trip

- 싱가포르내 '올타리밖 체험 교육' 실시
- 학교 실내외 이용 독서 캠프, 파자마 파티 등 '올타리 안 체험 활동' 실시



Uniquely Curriculum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수업 중심 Teaching Centered

- 1,2학기 2회에 걸친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 실시
- 월 2회 마이크로 티이칭을 통한 수업 기술 향상 장학 실시
- 모든 교사가 수업동영상을 연 2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탑재



Uniquely Curriculum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Updated Homepage

- 실시간 유치원 생활을 동영상 혹은 사진으로 게재해 학부모님들의 알 권리를 충족
- 유치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감

유초중고 협력 Inter-department Cooperation

- 중등학생의 보조교사활동 등 선후배 협력
- 유초연계학습 강화



사진으로 보는 유치원 Photo Journal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사진으로 보는 유치원 Photo Journal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Fun Fun Soccer Day

서영아 작가 초청 독서 캠프

사진으로 보는 유치원 Photo Journal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원내 물놀이 활동

어린이날 축하 기념
교사 공연

비디오로 보는 유치원 Video Journal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비디오로 보는 유치원 Video Journal

Singapore Korean Int'l School





SKIS MISSION & MOTTO

**“Go Beyond Korea,
Explore the World!”**

Explore the World!

감사합니다.



토론

이원오 교 장(북경한국 국제학교)

임재홍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안정은 장학관(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안정근 교 수(김포대학교)

[토론 1]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답게 길러야 합니다.

이원오(북경한국국제학교장)

문무정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잘 보았으며, 그 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던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유아기를 해외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어른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다른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얼핏 생각할 때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밖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대부분이 한국문화나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경의 유아나 어린이들은 한국의 재미있는 TV 만화보다 중국 TV에서 방영하는 “희양양(喜洋洋)”이라는 만화에 더 친숙해져 있습니다. 재외 유치원교육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한국적 정체성, 생활습관 등을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유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정말 겉모습만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과정을 지역실정과 학부모 요구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재외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에서는 재외한국학교가 국내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다수의 학부모가 요구하는 외국어(영어) 조기 교육 등이 어렵고 이는 일부 학부모들이 병설 유치원을 외면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우리 문화를

익히는 정체성교육을 하면서 지역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병설유치원 교원 확보 및 능력 향상입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로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고용휴직을 하고 오는 경우는 북경의 경우 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 유치원은 원감을 제외한 모든 교사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재취업 형태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사립 유치원에 취업을 할 경우 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외학교 병설유치원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고경력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채용을 꺼리고 소속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청에 경력인정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연수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사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연수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연수의 경우 방학을 이용하여 유치원 소재 권역별로 교사들이 모여 관계기관에서 연수요원을 파견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에 오게 하여 연수를 받게 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 비용 문제 등으로 다수의 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수 시기도 한국에서의 연수는 방학을 이용해야 하는데, 중국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유치원이 1월 하순에 방학에 들어가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습자료 및 교구·기자재 지원이 현물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비를 지원해도 필요한 한국 관련 학습자료나 교구를 현지에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들여올 경우 관세 부담 외에 통관하는 데에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도서,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통관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필요한 물품 신청을 받아 대행업체를 선정, 일괄 구입 후 배송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외한국학교 교수-학습자료비를 지원하면서 병설유치원을 포함시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하나의 좋은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북경이나 텐진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100% 학부모가 내는 입학금과 수업료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외한국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예산의 30~40%까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병설유치원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법령 개정으로 병설유치원

인가를 정부에서 해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학부모들이 인가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의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린이집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재정 지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수의 재외교민들은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 교민 저소득층의 경우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설 유치원에는 경제적 이유로 보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집에서 데리고 있던지, 아니면 아주 저렴한 중국 유치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북경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은 금년 8월 새 건물로 옮겨 많은 유아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 구입과 리모델링에 따른 학교 재정의 어려움으로 유치원비 인상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새로 이전한 유치원이 좋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선뜻 보내지 못하는 교민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은 그래도 우리 교민이 어느 정도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 교민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부족하지만 한국 음식, 의류, 영화, TV 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는 곳도 전세계에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현지 유치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유아 학습자료, 문화 이해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정비하고 홍보하는 등 정부기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토론 2]

임재홍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메모>

[토론 3]

안정은 장학관(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메모>

[토론 4]

재외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의 활성화를 통한 재외동포 교육의 새로운 도약

안정근(김포대학교 국제교육원장)

먼저 문무경 박사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신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지난 몇 년간 재외동포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하지는 못했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분야인데 전체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셔서 의미 있는 결과와 개선방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재외동포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과의 통용성 있는 교육과 원만한 현지 적응을 위한 교육, 그리고 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환경에 따라 적절히 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재외 동포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체류 국가, 체류 형태, 진학 계획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 동포가 많은 일본이나 남미에서의 교육 요구와 일시체류자가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요구가 같을 수 없고 같은 일시체류자라 할 지라도 초등교육부터 국내로 돌아올 자녀와 중등교육부터 국내로 돌아올 자녀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같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해부터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많은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과정에 해당하는 병설유치원의 교육과정도 같은 맥락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곧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원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특히 재외동포 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10여개국에 불과합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동포 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 그 범위가 이전 유아교육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학교 관련 예산은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의 사립유치원들도 적지 않은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방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는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취업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국내 기업은 글로벌화를 통해 국내에서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외 한국학교의 의미를 단순히 동포교육의 차원으로만 볼 때는 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수요층이 대부분 일시체류자의 자녀들이라는 점은 자녀 교육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해외 취업이나 해외 파견근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됩니다. 특히 초등교육 못지않게 유아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교육의 연계성과 연속성이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유치원단계에서 현지유치원이나 국제학교를 선택한 경우는 초등교육 단계에서도 현지초등학교나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한국학교의 라인업을 가지고 재외국민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교육 프로그램과 호환성 있는 교육을 통해 언제든지 국내에서 연계된 교육이 가능한 seamless education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시체류자 수요 중심의 한국학교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 방향은 우선 예산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과 우수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정부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 전액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설립 초기 학생 인원의 성장이 더딜 뿐 아니라 충분한 수의 능력있는 교사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순환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설립인가 직후에는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최소한 병설 유치원이 일정한 규모에 이를 때까지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은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과 연수 확대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학교에 대한 파견 교사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에 파견교사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중 일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급여 수준을 개선하고 이에 따라 양질의 교사 유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처우 개선에는 급여 수준의 개선이외에 근무경력 인정과 귀국 후 재취업시 불이익 해소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수 기회의 제공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한국과 동일한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교사 연수 및 재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한데, 권역별 연수 강사 파견 또는 부분적인 한국 초청 연수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면 국내 유치원의 기본 교육과정과의 편차가 심해져 학부모들이 seamless한 교육에 대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앞서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육의 기본 요소의 하나인 학습자료 및 교구 기자재에 대한 지원도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들은 현지의 여건과 그 규모 상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준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고 학습비용의 상승과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한국학교 병설 유치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의 전환입니다. 2012년도에 한국학교에 대한 정책기조는 민족정체성 교육에서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글로벌 교육의 전진기지라는 개념으로 크게 전환하였습니다. 한국학교의 체제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에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격적인 운영정책으로 전환한 것인데, 그 일부는 병설유치원과의 연계에 의한 발전에 할애되어야 합니다. 병설유치원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한국학교 중에서 발전이 정체된 한국학교는 거의 없다는 점은 이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법적인 설립근거를 만들고 인가한지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라면 최소한 국내 유치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재외동포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재외 교육기관 중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기관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